



오륙도축제·UN평화대축전 개막

내달 21일 22일 팡파르... 유엔피스퍼레이드 가요제 걷기대회 등 프로그램 '다채'



오륙도축제와 UN평화대축전이 내달 21일부터 5일간 열린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남구 지역에서는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제15회 오륙도축제가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옛새간 백운포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오륙도, 문화'를 비추는 등대'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3년만에 열리는

축제로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민 대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행사는 내달 21일과 22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열린다. 먼저 축제 첫째 날인 21일에는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거리퍼포먼스가 경성대 앞, 메트

로시티 앞, 용호동 부산은행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어 주민자치회 경연대회가 백운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오후 5시2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과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식이 열리며 뒤를 이어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오륙도가요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성재영 문화원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열리는 가요제에는 예심을 통해 본선에 오른 13개 팀이 출연해 노래실력을 뽐낸다. 초청가수로 이해리와 백수정, 함종아, 김상진이 무대에 오른다. 가요제가 끝나면 오색빛깔 뮤직 레이저 컬러쇼가 펼쳐진다.

다음날인 10월22일에는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오륙도사랑 구민걷기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축제기간에는 체험 및 부대행사도 열려 참가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륙도 바람등대와 백운포 행사장 내에서는 바람개비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대형 천체돔이 설치돼 별자리를 알아보는 '우주야 놀자'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부대행사로서 남구문화인화 백일장이 10월23일 평화공원에서 열린다. 세계유일의 UN기념공원과 대학로를 연계한 축제 'UN평화대축전'도 10월22일과 25일 나흘간 남구 전역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축제는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이사장 김정훈·박맹언)가 축제 개최를 통해 UN평화특구와 남구가 세계 평화의 성지임을 알리고 전세계인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화합을 노래하고 경향하는 세계적인 평화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린다.

이번 축제의 메인은 10월23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UN평화 거리퍼레이드. 6개 단위로 나눠 열리는 이 행사는 태극기와 유엔기, 김정훈 국회의원 등 VVIP, 군악대 등을 선두로 참전국을 대표하는 용사와 유가족이 차량에 탑승해 부산박물관~UN기념공원~교통방송국~경성대~부경대를 돌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을 펼친다. 뒤를 이어 UN기념공원에서는 용사의 빛 점등식이 공원 내 용사의 길에서 열린다.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평화 메시지를 담은 등 2,300개 용사의 길을 따라 설치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부산시와 UNMCK, KBS가 공동 주최하는 KBS교향악단 연주회가 열린다.

다음 날인 10월24일에는 부경대 마래관에서 평화콘서트 특강이 열린다. 같은 달 25일 문현곶창거리에서는 그때 그시절 음식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이외에도 최민식의 평화시화전, 평화타일만들기 및 평화도서관 전시회 등도 열린다.

오랜 주민숙원사업 속속 해결

감만지구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통·우암동 도시숲 준공



감만지구 부산항 연계수송도로가 지난 2일 완전 개통됐다.



우암동 도시숲 준공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준공을 축하하고 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남구는 최근 감만동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 개통과 우암동 도시숲 준공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을 펼치고 있다.

남구는 지난 2일 오후 구청장과 김부성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만지구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인 석포로

64번길 개통식을 열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남평시장 위 길이85m, 폭10m 도로로 국·시비 4억원을 투입, 공사 5개월 만인 이날 준공됐다.

이에 따라 감만지역의 컨테이너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감만지구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전 사업구간이 완전 개통돼 감만동 일대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택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구는 또 지난해 9월 우암동 도시숲 1차 조성공사를 마무리 한데 이어 지난 2일 2차 조성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구청장과 김부성 국회의원, 시·구의원, 강성도 양산국립원 관리소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구는 지난 4월부터 방곡진지로 사용해 오던 1.8531m 부지에 데크와 경관조명,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수유 등 9종 2만3,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남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만4,932m의 우암동 127-142 일원 공동묘지에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녹색공간으로 만드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도심 내 협요곡이었던 이곳에 5만 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녹색공간으로 만들고 파고라와 횡통길, 산책로 등이 조성되면 사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확정

국·시비 등 159억5천만원 편성, 수해복구·용호지역 침수피해 개선사업 추진

지난 7월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남구는 지난 20일 국비 74억원 시비 56억원 등 모두 159억5천 만원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확정돼 수해지에 대한 조속한 복구 및 용호로 침수피해 개선 복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남구는 소방방재청, 교과부, 환경부, 산림청의 예산으로 피해지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남구는 먼저 폭우로 붕괴위험이 높았던 용호4동 H아파트 피해지는 용벽에 베타복과 토사 제거 가시설 등을 설치하는 응급 복구작업을 내달 10일 마무리하

고, 현재 항구복구를 위해 용역 의뢰 중이다.

운산초등학교 밑 도로 파손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도 한창이다. 현재 기존의 하수관을 제거하고 하수박스를 교체하고 나머지 112m 구간에 대해서도 항구복구할 계획이다.

호우 피해 이재민·소상공인 지원

남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359세대에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와 더불어 남구는 이번 폭우

용호동 지역의 상습침체 현상을 막기 위한 용호로 침수 피해 개선 복구사업도 추진된다. 남구는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한 다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류조 게이트밸브 및 펌프장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310명에 게 100만원씩 지급했으며 중소기업청을 통해 연3%대의 저리로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최고 5천 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세계불꽃축제·국제영화제 열린다

제7회 부산세계불꽃축제가 내달 21일부터 29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시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기간에는 사랑나눔 패션대축제를 시작으로 해외 불꽃경연대회, 한류비치콘서트, 부산멀티불꽃쇼 등이 펼쳐진다.

이에 앞서 내달 6일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된다. 같은

달 14일까지 해운대 영화의 전당 등 5개 극장에서 열리는 영화제에는 70개국 307편이 초청돼 영화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빈다.

한편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내달 12일 저녁 7시 복지관 앞뜰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승두말 전망시설 스카이워크 디자인 공모

남구는 용호동 오륙도 일원 승두말 일원에 설치할 전망시설 '스카이워크'의 디자인 작품을 공모한다.

대상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디자인센터, 건축사협회, 디자인협회 등 관련업체로 제한하며 작품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오륙도 등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내용을 담으면 된다.

응모 마감은 내달 7일이며 이 기간동안 남구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찾아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당선작은 10월 중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홈페이지(www.bsnamgu.go.kr)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607-4542

독감 예방접종 내달 5일부터

동별 일정에 맞춰 구청 1층 대강당서 실시

2011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내달 5일부터 동별 일정에 맞춰 실시된다.

접종 장소는 구청 1층 대강당이며 대상자는 무료접종 대상 주민들이다. 65세 이상 주민(1947년 이전 출생자)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만 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1~3급,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접종 대상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별 인플루엔자 접종 일자	
일자(요일)	해당 동
10월5일(수)	대연1동
10월6일(목)	대연2·3동
10월7일(금)	대연3·4동
10월10일(월)	대연6동, 용명동
10월11일(화)	용호1동
10월12일(수)	용호1·4동
10월13일(목)	용호2·3동
10월14일(금)	간암1·2동
10월17일(월)	우암1·2동
10월18일(화)	문현1·2동
10월19일(수)	문현3·4동
10월20일(목)	동별 일정에 접종하지 못한 무료대상자
10월21일(금)	

올해부터 부산시 접종 대상 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주민은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야 한다.

보건소는 추운 날씨에 장기간 대기 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청 1층 대강당에 대기실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이고 동별 분산 접종을 통해 몰림 현상을 방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근무조를 특별 편성, 질서유지와 예진표 작성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607-6460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할까? 말까? 부산고려병원에 가보고~
걱정정하시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모두 잘하는

척추, 관절 토달케어 하는 병원이라네요

연기인 강 부 자

강부자

척추, 무릎관절을 새롭게 하는 힘- 부산고려병원!

24시간 콜센터 1670-3119

정형외과(9개과) | 내과(3개과) |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3개과) | 신경과 | 지하철 2호선 대연역 3번 출구앞



부산고려병원